

지역 메아리

김제사랑장학생 198명 선발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권한대행 이후천)은 김제백년 미래를 이끌 어갈 2018년 김제사랑장학생 198명을 선발했다.

장학재단은 9일 이후천 이사장 관한대행 주재하에 김제사랑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통장자녀 장학생 6명, 특별장학생(예·체육특기자, 다문화가정 자녀) 5명, 일반장학생(고등학생·대학생) 187명 등 총 198명을 선발 2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발한 장학생들은 성적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 계층 학생 및 재능과 열정을 갖고 김제시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들을 고르게 선발하여 수혜범위를 확대시켰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둔산도립공원 암벽등반 개방

대둔산도립공원에서 암벽등반이 가능하게 됐다.

완주군은 지정된 구역에 한 해 대둔산도립공원 암벽등반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개방된 구역은 대둔산 신선암벽과 옥계동 양지바위, 천등산 하늘벽 3개소다.

개방된 구역 외는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방된 암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암벽장소 및 이용일시 등이 포함된 암벽이용신청서 등을 작성해 대둔산 관리소에서 현장접수하거나 FAX로 접수 후 이용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세입세출외환금 장기보관금 정비

김제시는 각종 보증금을 납부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잡지고 있는 '세입세출외환금 장기보관금'을 올해 상반기 내 집중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세입세출외환금은 하자보수보증금이나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나 세출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을 말한다.

각종 보증금은 사업종료 등으로 보관기간이 종료될시 납부자가 반환 청구하면 즉시 현금을 반환해야 하며, 5년간 반환 청구가 없을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시는 해당 보증금을 시 세입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김제시가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환금은 12억원으로 이중 보관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보증금이 1억8,000만원에 이른다.

/김제=곽노태 기자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게”

김제시 - 참고을 - 푸드웨어, 투자협약 체결

김제시는 9일 2층 상황실에서 지평선산업단지 투자하는 (주)참고을과 순동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주)푸드웨어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과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김제시의회 나병문 의장, 박두기 운영위원장, 온주현 안전개발위원장, (주)참고을 김운권 대표, (주)푸드웨어 공형갑 사장이 참석했다.

현재 순동산업단지에서 참기름과 각종 장류를 생산하고 있는 (주)참고을은 2000년 설립해 129명의 직원들과 함께 2017년 기준 국내 매출 731억을 달성했다.

또한 2013년 베트남으로 진출하여 해외시장까지 개척한 먹거리 산업의 선두주자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에 부지 1만9,835.75㎡(약 6,000평) 규모에 114억을 투자하고 신규로 2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주)참고을은 투자협약과 함께 같은 날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매매계약도 체결하여, 곧바로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4월 준공한 지평선산업단지에는 이번 계약으로 분양률 80.8%에 이르러 타지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에 비해 월등한 기업유치 성과를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



김제시는 9일 2층 상황실에서 지평선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주)참고을과 순동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주)푸드웨어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호를 밝히고 있다.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지평선일반산업단지 투자를 결정해주신 (주)참고을과 순동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해주신 (주)푸드웨어 대표이사님 비롯한 임직원께 감사드리며, 현재도 김제시에서 손꼽히는 우수 기업이지만 내년이 변창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며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우수 지자체 사업 선정

청년창업 공동체 육성·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등

완주군이 청년창업 공동체 육성,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등을 우수 지자체 사업으로 선정했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지난 6일 개최하고, 우수지자체 사업 및 민·관협력 우수사업 등을 선정했다.

51개 세부사업 중 지역사업(지자체사업) 총 28건으로 청년창업 공동체 육성,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가족문화교육원 운영이 지역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역사업 중 민·관협력 우수 사업으로는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가 돋보인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1111사회소통기금 운영, 농촌형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이 꼽혔다.

2017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10개의 추진전략, 17개 중점사업, 5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실무담당자의 자체평가와 평가 TF팀의 모니터링을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실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완주군, 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8월 이후 지급

완주군이 관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완주군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록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4월 2일) 기준 현재 2년 이상 부모 중 1인이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학생 본인이 2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5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학자금(등록금), 일반상환학자금(등록금)의

대출자로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학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063-290-2273)나 읍면사무소, 완주군청 홈페이지(www.wanju.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접수 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8월 이후 대출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규모 항공정비기업 유치, 환경강 기적 이뤄낼 것”

민주당 박준배 김제시장 예비후보, 새만금개발 정책 기자회견서

더불어민주당 박준배 김제시장 예비후보는 9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개발 정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박 예비후보는 “대규모 항공정비기업(MRO) 유치, 새만금개발공사 유치, 2030새만금세계박람회 유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명을 일으키며 새만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유통, 컨벤션 숙박단지 개발로 김제 경제 도약

시대를 열어 환경강 기적을 이뤄낼 것이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어 “청의적이고 열정적인 공무원들과 함께 지평선산단에 조기 기업유치하고 종자산업을 포함한 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인공지능산업 등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평선학당에 기업취업반과 공무원시험반 운영하고 100여개 매대를 설치한 청년몰 사업 등으로 후기청소년 취업대책을 강화, 노인협동조합운영, 학교급식협동조합운영 등으로 30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여 소득 주도의 경제도약시대를 창조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경제 살리기 비상연대회의 제안

박재완 완주군수 예비후보

민주당 박재완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완주군 경제 살리기 비상연대회의”를 다른 출마자들에게 제안했다.



9일 박 예비후보는 완주군청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경제의 위기 속에서 우리 완주군의 경제마저 흔들릴 수 있는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군산 GM처럼 완주 현대자동차에서 이상 징

후가 발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예비후보는 최근 전북도의원 신분으로 도의회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도 GM자동차 군산공장만큼 위기에 빠져들지 모른다”면서 “지금 당장 정·관가가 나서 제2의 GM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이날 “정당을 뛰어넘어 완주군수 출마자들의 지역 경제 살리기 비상 연대회의를 제안한다”며, “하루속히 자리를 만들어 완주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 나가자”고 제안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